



김 제 중 앙 교 육 통 신
원숭이두창 감염병 예방 안내문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 발령)

교무실 063-546-4851
행정실 063-546-4850
<http://www.kim-ja.es.kr>

스스로 배우고, 더불어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국외 원숭이두창 대비,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 및 행동수칙을 안내드립니다.

-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 4단계
- * 현재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하되, 고시 개정 이전에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선제적으로 관리

원숭이두창(Monkeypox) 질병 개요

잠복기	5~21일(보통 6-13일)	
전파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	
	비말	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 간 직접 전파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피부,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 통한 전파
임상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의 정도는 경증에서 중등도이지만 치명적일 수 있음 - 발열,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근무력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을 보이며, 원심형으로 신체 다른 부위(특히 사지) 확산, 구진성 발진은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특정 부위 발진은 대개 같은 진행 단계인 것과 림프절 종대가 특징, 증상은 약 2-4주 지속 	
병원소	감염된 야생동물(원숭이, 다람쥐, 감비아 자이언트 쥐 등) 등	
원숭이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발생지역 현지에서 유증상자 및 설치류(다람쥐 등), 영장류(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금지 -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339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두창 감별진단

구분	원숭이두창 (Monkeypox)	수두 (Varicella)	대상포진 (Herpes zoster)	단순포진 (Herpes simplex)	홍역 (Measles)
발진 사진					
발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부터 전신 팔다리로 진행 • 경계가 명확 • 중앙이 파인 수포성발진 • 대부분 같은 단계의 발진 • 손·발바닥 침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를 포함. 주로 몸통 쪽으로 진행 • 경계가 불명확 • 수포성 발진 • 발진마다 단계가 다를 수 있음 • 손·발바닥 침범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 전체 발현 가능 • 신경절을 따라 띠 형태로 나타남 • 국소적인 부위에 나타나는 수포성 병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소적으로 피부, 점막(눈, 입술 등) 모두 침범 가능 • 주로 입술 구강 인두, 음부 쪽 발생 • 수포, 궤양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붉은 반구진성 발진 • 얼굴~귀 뒤, 이후 몸통 중앙 쪽으로 진행 • 탈피 가능
임상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두통+근육통부터 시작 • 고열 가능 • 발열 1~4일 이후 발진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통+근육통부터 시작 • 미열(38.8도미만) • 발열 0~2일 이후에 발진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음 (감각 신경 침범) • 운동신경 침범의 경우 마비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변 부위 통증, 가려움증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열+기침+결막염 • 증상 수일 발생 후 발진 발생
림프절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목, 겨드랑이, 서혜부 • 단단함, 압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물
여행력, 성접촉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콩고) • 유럽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 • 남성 동성애자 중심으로 발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도, 아프리카

2022. 6 . 27.

김 제 중 앙 초 등 학 교 장